우리 화섬산업의 성장과 구조변화(12)

3. 한국화섬산업의 성장과 구조변화

3.1. 화섬산업의 경제사회에서의 위치

3.1.1. 화섬산업의 수요와 공급

화섬섬유산업은 석유화학공업(石油化學工業)으로부터의 TPA, 카프롤락탐, AN 모노머 등 석유화학제품(石油化學製品)과 화학펄프를 원료로서 조달하여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비스코스레이온 등 섬유산업의 기본소재(基本素材)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이러한 기본소재는 방적, 제직, 봉제 등의 후방활동(後方活動)에 쓰이게 되며, 이들은 의류산업뿐만 아니라 각종 건설활동이나 제조업 생산활동에 재료(材料)로서 다시 활용(活用)되고 있다.

봉제를 비롯한 의류산업이 그 성격상 노동집약적인 산업인데 비해 화섬산업은 큰 규모의 일관된 생산설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자본집약적이고 장치산업인 특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화섬산업은 임금 등 노동비용의 변화에 별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새로운 설비의 도입, 설비활용도의 제고 및 활용방법의 향상, 새로운 제품의 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화섬산업과 의류산업 등과의 긴밀한 관계를 피상적으로 주목하고 나서 화섬산업을 의류산업과 차별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종래 저임노동력에 의거해 대량생산해 수출하던 섬유제품이 근자 임금이 상승하는 등에 따라 경쟁력을 잃고 사양화되어 가는 현상을 보고 이것을 화섬산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여 화섬산업도 의류산업과 마찬가지로 사양산업이라고 생각하는 견해도 없지 않다. 그러나 화섬산업의 제품은 의류용뿐만 아니라 산업용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의류산업이 위축된다고 하여 화섬산업이 반드시 위

축될 이유는 없다. 나아가 의류생산과 관련해서도 의류산업이 종래의 저가의 류제품의 생산에서 벗어나 패션을 좇고 선도하는 고부가가치창출의 의류제품을 주로 생산하도록 탈바꿈하는 경우에는 화섬산업제품의 의류용 수요도 무한정하게 늘어날 수가 있다. 고가의류의 수요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가속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화섬산업은 과거의 저가 의류제품에 대한 원료공급의 외길에서 벗어나 차차 고급의류의 원료로써 쓰이게 되고 또 산업원료로써 쓰이게 되는 등의 길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적응을 계속하는 한 화섬에 대한 수요는 거의 무한에 가깝게 늘어나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섬유산업 일반이 보다 고도화된 생산능력과 공급양태를 가지게 되는 한, 우리나라 화섬산업의 수요측면은 별 걱정거리 없이 안정성장이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치산업으로서 화섬산업의 공급 능력은 기계설비의 성능과 더불어 생산규모에 크게 의존한다. 화섬산업의 공급곡선은 이른바 규모의 경제 현상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경제력 있는 화섬산업은 상당한 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당한 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그러한 만큼의 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생산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투자행위가 선행되어야 하고, 나아가 수요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의 고려에서처럼 수요측면에서 걱정될 것이 없다고 할 때 화섬산업의 공급능력을 그렇게 계속 증가하는 수요에 상응하는 공급능력을 확장하는 투자의 증가에 의해 좌우되게 된다. 다른 산업에서의 투자와 경쟁관계에 서서 화섬생산시설의 확장을 위한 투자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느냐에 의해 좌우되게 된다. 이는 화섬관련투자의 수익성에 의존할 것이고, 나아가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하는 상황에서는 경제개발계획에서 화섬산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되고 있느냐에 의존할 것이다.

화섬산업의 수익성은 TPA, 카프롤락탐 등 석유화학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느냐에도 의존한다. 화섬산업의 생산공정에 대한 이러한 원료는 국내에서의 석유화학공업의 공급능력 및 국외로부터의 수입의 용이성에 의존한다. 국내에서 저가의 석유화학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석유화학공업이 잘 발달되어 있을수록 화섬산업은 탄탄한 공급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국내에서 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해외로부터의 수입이 용이하면 용이할수록 화섬산업의 공급능력은 탄탄하게 된다 할 것이다.

3.1.2. 한국 화섬산업의 성장개관

(가) 정성적 관찰

우리나라의 화섬산업은 1960년초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생산기반을 정비하고 그로부터 생산한 제조업제품을 수출하여 노동이용에 대한 부가가치를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생성 발전되어 왔다.

초창기에는 원조자금과 차관을 가지고 섬유공업시설을 보수 확충하고 해외로부터 기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면방 중심의 섬유공업이 생성되었고, 이것은 1967년 섬유공업시설에 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법적인 뒷받침을 받게 됨으로써 여러 회사들 사이의 시설 조정과 품질개선 등을 통해 발전하게 되었다.

1967년 제2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국내에 괄목할만한 석유화학산업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화섬산업의 원료가 국내에서 조달될 수가 없었고, 그때에는 화섬산업의 위상도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이었다. 그러다가 제2차 5개년 계획에 따라 석유화학, 전기, 기계 등과 함께 합성섬

유가 육성대상산업으로 선정되어, 금융 및 세제 등 여러 면에서 지원을 받게 되자 이를 계기로 하여 화섬산업도 본격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화섬산업계 최초의 본격적인 기업은 1963년 미국의 켐텍스와 기술제휴 및 자본참여 관계하에서 형성된 한국나이롱이다. 이 회사는 나일론 필라멘트를 생산하였다. 1967년에는 서독 짐머의 기술 및 자본참가에 의한 동양나이론이 나타났고, 1967년에는 한일합섬과 태광산업이 아크릴을 생산하게끔 되었다.

폴리에스테르의 생산에 있어서는 대한화섬이 1968년에 미국 켐텍스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을 개시한 것과 삼양사가 1969년 일본에스텔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을 개시한 것을 주목할 수 있다. 그 후 1970년에 들어와 각각 일본 테이진과 도레이의 직접투자를 받아들인 선경합섬과 코오롱이 생산경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기술계약을 통해 삼양사도 이때의 경쟁에 가세하게 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동양나이론계 합자회사인 동양폴리에스터가 더욱 큰 생산시설을 가지고 이 경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서는 제일합섬도 참여하게 되었다.

한국의 화섬산업은 그 이전에 이미 발달되어 있는 의류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발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의류산업은 섬유산업의 대표적이었고, 섬유산업은 초창기 경제개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다.

한국경제의 성장은 이른바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따라 추진되었다. 당시 한국경제의 부존자원 중 가장 풍부한 것이 숙련되고 값싼 노동력이었기에, 이것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 뒤 그것을 해외시장에다 파는 방식의 경제 순환을 의도했었다. 제조업 중 노동집약적인 성격의 섬유산업은 한국경제에 상대적으로 많은 고용기회를 부여해줄 수 있었고, 섬유제품의 해외수출은 수출주도형 성장경제의 마케팅 능력제고의 훈련처가 되었다. 특히 이때에는 해외에서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격경쟁력이 중요하였으며, 이를 획

득하기 위해서는 국내생산과정에서 생산규모를 늘려 대규모생산의 이익을 꾀하는 일방, 생산과정의 모든 분야에서의 효율화를 꾀하지 않으면 안되었는 바, 섬유수출은 이를 촉진하는 촉진제가 되었다.

1980년대 이후와 달리 1960년대와 1970년대의 20여년은 대부분의 나라, 특히 저임의 노동력을 가진 개발도상국들이 수출에 주력하지 않았던 시대이었다. 이른바 신흥공업국이라고 지칭되는 몇 나라만이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꾀하는 등 사유 때문에 국제시장환경이 수출주도형전략을 택한 나라에게는 비교적 유리하게 전개되었었다. 그리고 이때 신흥공업국의 대표 주자인 우리나라는 이른바 수출제일주의를 택해 국민경제의 힘을 제조업제품의 수출에 집중시키는 노력을 했다.

제조업 중 노동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자본설비가 적어도 되는 경공업이 중공업보다 먼저 선별될 수 있었음은 당연한 것이었고, 경공업중에서는 해방이전부터 다소간의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또 새로이 시작하기도 용이한 섬유공업이 제1차 선택의 대상으로 된 것 또한 당연한 일이었다. 이에 따라 섬유제품은 우리나라 수출의 대종을 차지하게 되었다.

최초의 섬유공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조달이 안 되는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화학섬유의 기본소재인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비스코스 레이온 등도 최초에는 수입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후에 화섬협회로 된 한국스트렛치공업협회가 1963년에 결성되어 원료의 공동수입을 꾀하고 수입활동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을 요구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국내 섬유공업의 성장에 따라 보장되어 있는 국내시장을 두고 그것의 원료인 이들 기본소재를 언제까지나 수입해서 쓴다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 아니었다. 이들의 수입대체가 필요하였고, 그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60년대 초 나일론을 시작으로 하여 섬유산업 기본소재의 국내생산이 시도된

것이다.

수입을 하던 것을 국내생산으로 대체하여는 수입대체행위를 시도함에 있어 언제나 당면하게 되는 문제는 수입대체로 생산된 것이 가격 및 품질면에서 수입품과 대동하냐 하는 것이다. 수입대체품 생산을 시작하는 때에는 생산공정이 완전히 파악되고 있지 않아 품질면에서 불완전할 위험성이 있다. 또 수입대체품 생산의 초기단계에서의 생산량은 대규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규모의 생산에 따르는 이익을 도모하기가 쉽지 않아 가격이 최저한으로 낮아질 수 없다.

한국의 화섬산업의 생산도 처음에는 이러한 한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다. 초기의 생산규모는 적정규모 이하이었다고 여겨지고 있고 당시의 실 생산가격은 수입가격에 근접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러나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수출보조가 가능한 시기이었다. 어떤 나라가 자국이 수출하는데 보조금을 주어 해외시장에 원가 이하의 싼 값으로 수출한다고 하여 상계관세를 맞거나 반덤핑 등 보복조치를 당하지 않았던 시대이었다. 요즈음처럼 수출보조를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수입국의 일자리를 줄이고 이른바 불공정무역을 하는 것이라고 인지되어 보복의 대상으로 되지 않았음은 물론, 그 반대로 수출국이 수입국에다 사실상 무상의 자원이전을 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수출국의 수출보조는 수입국으로부터 환영 받았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환경 안에서 한국의 화섬산업은 한국경제의 개발초창기의 많은 산업이 그러하였듯 수출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아 가격과 품질면에서의 열위를 극복할 수 있었다.

우선 화섬산업은 비교적 낮지 않은 관세율을 통해 국내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 화섬산업의 생산물과 경쟁하는 것으로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수입억제 조치가 있었다. 나아가 화섬산업은 이른바 로칼 LC라는 제도를 통해 수출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로칼 LC 또는 내국신용장이란 우리나라 수출지원제도에서의 특성의 하나인데,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신용장을 받은 사람에게 수출금융을 제공하여 지원하는 우리수출지원제도의 연장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수출금융을 받기 위한 제1차적 요건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직접 신용장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금융조건으로 신용장수취만을 주장한다면 외국으로부터 신용장을 받는 국내의 수출업자가 수출품을 생산하는데 쓰는 원자재나 중간재를 생산하는 국내의 생산자는 비록 그런 중간재 생산을 통해 수출에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직접 신용장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수출금융지원제도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중간재 등의 생산자도 간접적으로 수출활동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직접 외국으로부터 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로 하여금 그러한 수출에 소요되는 중간재 등을 구입할 때 구입액에 상응하는 정도로 내국신용장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뒤 이러한 내국신용장을 받은 국내 중간재 생산업자에게 수출금융을 지원해 주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간접적 우회적으로 수출에 기여하는 생산자 또는 수출품의 생산판매과정의 최종 단계 이전에 존재하고 있는 생산자들을 지원 육성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다. 내국신용장제도란 이렇게 수출품에 쓰이는 원자재나 중간재를 생산하는 생산자에게 수출금융제도를 연장하는 수단으로서, 내국신용장에 기재된 판매액에 상응하게끔 수출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용장에 의한 수출지원제도는 수출을 하는 모든 기업에 대한 무차별적 지원이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 낸 수출에 지원 정도가 비례되게 하는 지원제도이다. 때문에 이러한 수출지원제도는 비교적 합리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사후적으로 평가 받게 되었다. 수출액이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의 최종 결과라

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수출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해외시장에서 점검된 바 경쟁력을 십분 발휘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출지원제도를 이러한 경쟁력 발휘에 상응하도록 운영하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부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경쟁력을 증대시켜 나아가는 기업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된다. 요약하건데, 우리나라의 수출금융제도란 신용장에 기반을 둔 제도이었으며, 수출에 대한 간접적 육성방도인 내국신용장제도도 이러한 신용장제도의 합리성에 의거하면서 운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